

2024 년 1 월 19 일 “(주님을 아는 지식 3) 부르심의 소망을 알기를”(엡 1:17-19)

바울의 중보의 두번째, 마음의 눈을 떠서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를 살펴보겠습니다.

[1]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다면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자녀의 새 삶으로 부름 받았지만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삶이 잘 못 된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출애굽한 광야 1 세대를 보면, 애굽에서 고통 당하며 살던 종으로부터 자유인으로 부르심을 받고 소망의 땅인 가나안으로 행진하게 됩니다. 그 땅은 척박하고 위험한 광야였습니다.

이집트에서와는 다른 고통이 따랐습니다. 생필품이 부족했고, 타민족이 호시탐탐 노렸습니다(예: 아말렉). 새롭게 형성된 신정국가 안에서 리더쉽에 대한 반발도 문제였고, 주변민족의 우상에 빠지기도 했습니다(브올에서 모압인들을 만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문제는 가나안 땅과 거기서 펼쳐질 새 삶에 대한 소망이 소멸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을 그리워하고 돌아가자고 합니다. 부르심의 소망을 잃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을 위해 기도한다면 본문 18 절의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가진 두려움과 불안의 힘은 매우 세기 때문에 소망과의 싸움에서 종종 이깁니다.

[2] 부르심의 장애물을 약화시키는 훈련

우리 또한 광야 같은 삶을 살면서 어떻게 소망을 견고히 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 측면:

- 1. 소망을 꺾는 방해물들을 무력화하는 것.
- 2. 고난을 통해 변화되는 것.

예수님께서 삶의 방해물을 언급하십니다.

눅 21:34 "... 방탕과 술취함과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너희의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하고 ..."

'방탕' 낭비하고 허송한다는 뜻

'술 취함' 거짓과 쓸데없는 것에 붙잡힌 상태 (술 취하는 것 외에도 집착과 중독에 빠짐)

'세상 염려' 나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믿어서 생기는 불안/두려움

이것이 마음을 짓누르면(개역개정. 둔하면) 영적 우선순위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라고 태어난 사람 됨의 근본적인 본분과 삶을 놓치기 쉽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 마음의 눈을 뜨고 보아야 하는 분은 주님입니다. 말씀을 깨닫고, 주님의 사랑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애쓰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얻는 약속된 축복은 방탕과 술 취함과 세상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나 자신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에 대한 참 소망을 꺾는 이 내적 방해물들을 극복하고 주님 앞에 선 자신을 재발견하는 것입니다. 이 때 나를 괴롭게 했던 불안과 두려움은 무력화되어 있을 것입니다.

나를 불안하게 하는 직접적인 요인들, 부족함, 나약함, 실수, 부정적 성품 등 이런 것들과 직접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귀향 길에서 야곱은 형 에서가 온다는 말을 듣고 두려웠지만 에서와 씨름하지 않고 주님과 씨름했습니다. 그것과 싸우면 싸울수록 수렁에 빠지고, 심신이 괴롭고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내 주변도 힘들게 합니다.

주님 바라보는 마음의 눈을 뜨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때 주님의 사랑으로 지어진 사람과 온 피조계가 결국 사랑의 꽃과 열매로 가득한 새 미래를 보며 소망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 부르심의 소망을 발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눔의 질문]

1. 주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마음의 눈을 뜨고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2. 나는 주님의 부르심을 입고(주님의 자녀로서, 직분자로서, 전공자로서, 등) 소망의 힘을 얻고 있습니까?